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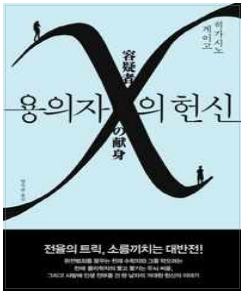
북 큐 레 이 션

- 이달의 추천도서 -

2026년
7월

무더위를 날려줄 추리소설은 어떤가요?

-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읽어보세요. -



정교한 살인수식에 도전하는 천재 물리학자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된다!

히가시노 게이고 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추리 소설.

이 소설은 일본 추리소설에서 흔히 보여지는 잔혹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테제를 따르고 있으며, 미로처럼 섬세하게 얽혀 예측하기 힘든 사건 전개와 속도감을 더하는 구어체 진술로 주제를 잘 풀어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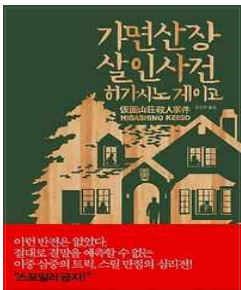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현대문학



잠재되어 있는 악의가 이길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 소설은 자기 연민에 빠진 범인 노노구치의 글과, 감정이 배제된 가가 형사의 기록을 번갈아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악의를 파헤친다. 인기 작가의 죽음에 얽힌 기나긴 악의의 여정을 탐구해가는 이번 작품은 ‘범인은 누구인가’보다 ‘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묻는 작가 특유의 가해자에 대한 성찰과 그 화법이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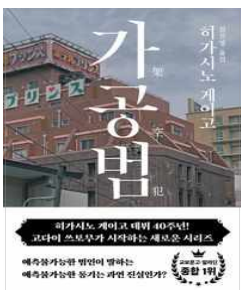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현대문학



누구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이중 삼중의 트릭, 스릴 만점의 심리전.

저자와 독자가 아슬아슬한 두뇌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 작품은 외딴 산장에 모인 여덟 명의 남녀와 한밤중에 침입한 은행 강도범의 인질극을 그리고 있다. 잘 짜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극과도 같은 이 소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반전을 담고 있다. 초대된 손님과 2인조 은행 강도 사이에 긴장과 서스펜스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전개되는 대반전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재인



진실을 찾는 눈, 진심을 향한 걸음
고다이 쓰토무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

불에 탄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체가 발견된다.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 고다이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다닌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다. 천재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멎게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북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로맨틱 미스터리.

모든 것을 가진 듯 완벽해 보이지만 가혹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딛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주위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한 여자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일단 책을 손에 들면 한 편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듯 흡인력이 강한 이 작품은, 잘못된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물론 소설의 재미를 새삼 깨우쳐 줄 것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태동출판사